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대표발의 : 유 영 숙 의원)

의안 번호	제3377호
----------	--------

발의년월일 : 2023. 11. 23.

발 의 자 : 유영숙, 권민찬, 김인수, 김종혁,
김현주, 황성석, 한종우

1. 제안이유

- 가.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김포·서울 통합법)이 제출됨.
- 나.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및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지연 등의 교통 문제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사항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의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고, 김포시와 서울시는 인접지역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편입은 타당한 근거가 있음.

2. 주요내용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은 서울시로의 통근 및 통학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 용량 부족 및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김포시의 서울시로의 편입을 위한 각각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함.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할 것과 행정안전부는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김포시민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이전에 실시할 것과 국회 등 관계
기관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

3. 송부대상 :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포시장

4. 결의문(안) : “별 첨”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법)을 찬성한다

지난 11월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지하철 5호선과 연장 지연과 GTX-D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 사항 해소, 김포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 경기도가 해결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포는 평균연령이 41세로 역동적인 지역이다. 그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분도를 꺼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남도로 가면 김포가 섬이 되고, 경기북도는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다. 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에 남도에도 북도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우리 김포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가? 김포가 남도나 북도에 포함되면 어떻게 생활권을 묶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그래서 김포시는 연결해 있고,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김포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각각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이 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선행요건인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이전에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김포·서울 통합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

2023. 11. 24.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